



# 번뇌·고통 벗어난 자유로운 삶

## ⑨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주제는 여러 종교나 사상·철학 중에서도 불교와 인도의 종교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기타 종교(기독교, 가톨릭, 이슬람)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무엇을 깨닫느냐? 이것입니다.

‘깨달다’ ‘깨치다’ ‘깨집’ ‘깨달음’은 모두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자어로는 ‘각(覺)’ ‘오(悟)’ 등이며,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bodhi,菩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존칭 가운데 하나인 ‘붓다’는 바로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깨달다’와 ‘깨치다’ 또는 ‘깨집’과 ‘깨달음’의 의미나 뉘앙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 아트만과 우주의 자아인 브라만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도불교에서 깨달음이란 제행무상·제법무아·일체개고·열반적정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쓰러져 간다(무상).” “모든 존재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무아).” “삶은 고(苦)이다.” 그리고 “욕망이 소멸된 마음 상태는 평온하다(열반적정)”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성제인 고(苦), 집(集, 집착)·멸(滅), 육량이 소멸된 고요한 세계·도(道, 고요한 세계)에 이르는 방법(8정도),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삼법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중도의 이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관계에 의하여 생성·소멸한다고 하는 연기의 법칙, 모든 존재는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오히려 대승불교에 와서는 중도·공사상이 깨달아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었습

고 고통이 사라진 세계는 평온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도불교에서 추구했던 깨달음입니다. 열반이나 해탈도 번뇌로부터 해탈 또는 번뇌의 소멸을 뜻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선불교에서 깨달음 역시 인도 불교도들이 추구했던 바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문화적으로 중국인들은 현실을 긍정하는 입장인 반면 인도인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인도불교는 현실을 ‘고(苦)’ ‘무상’이라고 규정했다면 중국의 선은 긍정적 사고 아래서 “어떻게 하면 평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平常心是道)” “나날이 좋은 날(日日是好日)”을 만드느냐? 거기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평상심(平常心)’을 갖자면 번뇌가 없어야 하고, 나날이 좋은 날 역시 근심·걱정·불안 등 번뇌가 없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걱정이나 불안 등 번뇌가 있다면 그것은 우울한 나날이고 지옥의 나날입니다.

또 선승들은 부처나 깨달음 역시 멀리서 찾지 말고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心是佛)’이므로 “그대의 마음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깨달음을 벗어나 현실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내성이나 미래 같은 것은 먼 훗날의 문제이므로 일단 놔두고 현재에서 지금 이곳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의 삶을 전개하고자 했던 것이 선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문화화 민족사 대표

### 힌두교의 깨달음은 개체·우주의 자아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 인도불교는 제행무상·중도의 이치·연기의 법칙을 자각하는 것

아주 오래 전에 ‘깨집’과 ‘깨달음’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깨집’은 한 번에 깨닫는 것(頓悟)을 뜻하고 ‘깨달음’은 점차적으로 깨닫는 것(漸悟)을 뜻한다고 구분한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어감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은 동사 ‘깨달다’를 명사화한 것이고, ‘깨집’은 동사 ‘깨치다’를 명사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깨치든 깨달든 간에 관건은 ‘무엇을 깨치고 무엇을 깨달느냐’입니다. 깨달았다면 무엇을 깨달은 것인지, 깨달음의 실제,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것은 정말 중생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힌두교의 깨달음과 불교의 깨달음, 그리고 선의 깨달음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의 깨달음은 자신의 주재자인 아트만과 우주의 주재자인 브라만의 합일, 그것을 ‘깨달음’ 또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깊은 명상을 통하여 개체의 자아

니다. 그 외에도 일체유심조로 대표되는 유심·유식 등도 깨달음입니다.

중도는 현실적·정신적으로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는 뜻으로, 오히려 이것은 생활철학 내지는 행동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는 상호관련성 아래에서만 존재한다는 논리로서, 존재와 사물의 생성·소멸에 관한 법칙입니다. 공(空)은 모든 사물이나 존재는 실체가 없는 것, 공한 것이라는 논리로서 무아·연기의 이치입니다.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들 중 많은 것,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사성제와 삼법인·중도·연기법·공(空)입니다. 이 5-6가지는 시대에 따라, 또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여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켰을 뿐,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이며, 영원불변하는 실체는 없으므로(無我·緣起·空), 너무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바로 고통이다. 그리

###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

## 부처님 앞에서 ‘십대서원’ 세우다

### ⑨ 승만 부인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등국원에 계시 때 파사 닉 왕과 딸리 왕비가 부처님께 귀의했다. 불법에 깊이 심취된 그들이 이미 아유타국(阿踰陀國)의 우정왕(友正王)에게 시집 간 딸 승만(勝曼)에게 편지를 써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며 삼보에 귀의하기를 권한다. 궁녀 찬다라가 가지 간 편지를 전해 받은 승만 부인은 환희심을 내어 참된 신심을 받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발원할 때에 부처님은 공중에 모습을 나타내시고 승만 부인은 예배를 올리고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중 속에서 승만 부인을 보시고 앞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부처님으로부터 보광여래(寶光如來)가 되리라는 수기(授記)를 받은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십대서원(十大誓願) 및 삼대원(三大願)을 세우고 법을 설하면서 부처님께 인가받는다.

### “삼승 가르침이 일불승에 귀일” 설법

### 여래장 근거 중생 깨달음 가능성 강조

이 경에서 설한 승만 부인의 설법 요지는 삼승(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이 모두 일불승(一佛乘)에 귀일한다는 것이다. 또 중생은 모두 번뇌에 둘러싸여 있지만 본성은 청정 무구하여 여래와 마찬가지로 ‘여래의 성품(불성, 여래성)’을 갖추고 있는 데, 이것을 공(空)과 불공(不空)의 양면에서 아는 것이 곧 바르게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래장(如來藏)에 의해서 생사윤회의 해탈과 열반의 증득도 가능하다는 법문이다. 즉 “세존께서는 여래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다고 설하신다. (하지만) 여래장에는 생사가 없다. 여래장은 유위의 상을 떠나 있으며, 상주불변하다”라고 설해진다. 여래장은 번뇌와 중생, 깨달음과 미혹, 더러움(染)과 청정함(淨), 무상(無常)과 상주(常住)의 근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래장은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에, 믿고 받아 지녀 직접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승만 부인은 “여래장은 자성정정(自性淸淨)이면서도 번뇌에 오염되는데, 이 관계를 범부가 알기 어

렵다”고 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지키며 결코 잊지 않겠다는 삼수정법(三受正法)을 서원한다. 삼수정법은 보살의 실천행인 6(바라밀)보시·인욕·지계·정진·선정·지혜(바라밀)를 뜻한다. 6(바라밀)을 닦아 해탈하기 위해서는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 등 일체의 물질과 정신 작용을 포함하는 ‘오온(五蘊)이 본래 공하다’는 이치를 깊이 자각해야 한다(五蘊皆空 一切苦空).

특히 승만 부인은 여래장 사상에 근거해 모든 사 람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는 청정한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불성에 대한 대신심이 절대적임을 밝히고 있다.

여래장이나 불성을 상주불변하는 아트만(atman: 我)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상견(常見)이다. 이는 무아(無我)와 공(空)에 집착하는 단견(斷見)과 마찬가지로 불성이 아니다. 불성은 유·무와 단·상의 변견을 초월해 중도로써만 체득된다. <열반경>의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하는 깨달음 중도라고 한다[佛性 非有非無 亦有亦無 有無合故 名為中道]”는 법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성, 자성정정(自性淸淨)에 관한 설법은 초기경전에도 나타나고 있다. 부처님은 <안국파라 니까야(중일아함경)> “자성정정경”에서 “수행자들이여, 이 마음은 청정하다. 빛을 발한다. 그러나 이것은 온 곳이 없는(본질적인) 것이 아닌 번뇌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고 설했다. 여기서 ‘청정하고 빛나는 마음’과 같은 표현은 대승불교의 심정정(心淸淨)·여래장사상의 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불성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에서 나온 회론(생각)에 불과하다. 아(我)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아(無我)에도 머물지 않아서,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자성을 직접 증득하는 도리밖에 없다. “아(我)와 무아(無我)에 있어서 둘이 아닌 것, 이것이 무아의 참뜻이다”(유마경) 라고 한 대승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해 보자. 김성우 객원기자

## 신 유식학

보다 완성도를 높인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 미르출판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신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揭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전·생활속 수행과 哲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입 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국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전라도 : 010-2311-0157  
강원도 : 019-396-1110      경상도 : 011-327-7697  
충청도 : 010-8674-23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 신행개시판

● 열린선원 ‘신가귀감’ 법화·백련재단 서울 열린선원에서는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원순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교신사)이 <신가귀감>을 강의한다. 같은 날 저녁 7시부터는 백련암 성철 스님의 제자 원통 스님이 3월 둘째 주부터 6개월 동안 관세음부살보모품 강의를 열린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승가대학원 원장 지안 스님이 <금강경>을 법문하고 있다. (02)722-0633

● 한국불교대학 2008년 신입생 모집-한국불교대학이 2008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3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각각 개강한다. 대구캠퍼스(053-474-8228)를 비롯해 경산도량(053-816-8228), 칠곡도량(053-313-8228), 구미도량(054-443-8228)이 동시 개강할 예정이다. 1년 수료과정으로는 불교초교과, 예불론, 선이심경, 천불가, 참선법, <천수경> <금강경> 등이, 2년 졸업과정으로는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강좌가 개설된다. 학력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가능하다.

● 덕주사 불교 교양대학 기본교육-덕주사가 3월 5일 불교교양대학 기본 교육을 개강한다. 이에 앞서 4월에는 기본 불교 교양과목을 3개월 과정으로 강의하는 불교교양대학이 첫 강의를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충주 여성회관에서 열린다. 22일에는 <금강경> 강연이 개강해 덕주사 관음전에서 강사가 이어진다. (043)653-1773

● 화정사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청주 화정사가 부처님 출가일인 3월 15일음력 2월 8일부터 출가일을 22일음력 2월 15일까지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를 봉행한다. 이번 참회기도의 주제는 차량 무사고 안전운행 기도이다. 기도 동참금은 3만원. 한편 화정사에서는 초의차문화 다도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반, 오후 7시반이 개설됐다. (043)255-5758

● 금산사 산사체행 68기 모집-금산사 산사체행 68기를 모집한다. 3월 7~9일 열리는 2박 3일 프로그램과 8~9일 열리는 1박2일 과정이 있다. 금산사 산사체행은 사찰예절습의 입재식, 마음-누기, 예불, 108배, 참선, 사찰인내, 부처님 생애, 선이심경) 시장, 발원문 작성, 다도 및 차 발원력, 야생차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108염주 만들기, 도량유력, 산행 등으로 이루어진다. (010)6589-0108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파트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이벤템 마스터 김희경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 민속죽염

생명을 에너지로  
순전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기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지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지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50,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 이상 구매 무료배송)

주변전화 : 053)985-1135 / 054)733-0478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

##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g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